연암집 읽기 제8강 강의안

제8강 : 예리한 익살이 빛나는 연암의 나날

1. 밤길 가는 눈 먼 장님(낭환집서蜋丸集序)

- 子祀子輿子犁子來 四人相與語曰...(莊子 大宗師)
- 雲將....奈何오 鴻蒙 拊脾雀躍掉頭曰(부비작약도두왈:넓적다리를 두드리고 껑충껑충 뛰면서 고개를 젓고는) 吾弗知 吾弗知(莊子 在宥)
- 富貴不歸故鄕 如衣繡夜行 誰知之者(史記 項羽本紀)

[주D-003]여룡(驪龍)의 구슬 : 여룡은 검은 빛깔의 흑룡을 말한다. 용의 턱밑에는 여의주(如意珠)라는 영묘한 구슬이 있다고 한다.

- 螗蜋自愛滾丸 不羨驪龍之如意珠 驪龍亦不以如意珠 自矜驕而笑彼蜋丸(靑莊館全書 蟬橘堂濃笑)
- 丁令威, 漢 遼東사람. 신선이 된 지 천 년 만에 학으로 변해 고향에 갔으나 어떤 젊은이가 알아보지 못하고 활로 쏘려고 했으므로 탄식하며 고향을 떠났다.(搜神後記)

蜋丸集序

子務子惠出遊하야 見瞽者衣錦하고 子惠喟然歎曰 嗟乎라 有諸己而莫之見也로다 子務曰 夫何與衣繡而夜行者아 遂相與辨之於聽虛先生한대 先生搖手曰 吾不知吾不知라하더라

자무(子務)와 자혜(子惠)가 밖에 나가 노니다가 비단옷을 입은 소경을 보았다. 자혜가 서글피 한숨지으며,

“아, 자기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구나.”

하자, 자무가,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걷는 자와 비교하면 어느 편이 낫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마침내 청허선생(聽虛先生)에게 함께 가서 물어보았더니, 선생이 손을 내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난 몰라, 난 몰라.”

昔에 黃政丞自公而歸러니 其女迎謂曰 大人知蝨乎인저 蝨奚生이니잇고 生於衣歟인저 曰然하다 女笑曰 我固勝矣와라 婦請曰 蝨生於肌歟인저 曰 是也라 婦笑曰 舅氏是我로다 夫人怒曰 孰謂大監智리잇고 訟而兩是오녀 政丞莞爾而笑曰 女與婦來하라 夫蝨非肌不化며 非衣不傅니 故兩言皆是也라 雖然이나 衣在籠中이라도 亦有蝨焉하며 使汝裸裎이라도 猶將癢焉이리니 汗氣蒸蒸하고 糊氣蟲蟲할새 不離不襯 衣膚之間이니라

옛날에 황희(黃喜) 정승이 공무를 마치고 돌아오자 그 딸이 맞이하며 묻기를,

“아버님께서 이〔蝨〕를 아십니까? 이는 어디서 생기는 것입니까? 옷에서 생기지요?”

하니,

“그렇단다.”

하므로 딸이 웃으며,

“내가 확실히 이겼다.”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묻기를,

“이는 살에서 생기는 게 아닙니까?”

하니,

“그렇고 말고.”

하므로 며느리가 웃으며,

“아버님이 나를 옳다 하시네요.”

하였다. 이를 보던 부인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누가 대감더러 슬기롭다고 하겠소. 송사(訟事)하는 마당에 두 쪽을 다 옳다 하시니.”

하니, 정승이 빙그레 웃으며,

“딸아이와 며느리 둘 다 이리 오너라. 무릇 이라는 벌레는 살이 아니면 생기지 않고, 옷이 아니

면 붙어 있지 못한다. 그래서 두 말이 다 옳은 것이니라. 그러나 장롱 속에 있는 옷에도 이가 있고, 너희들이 옷을 벗고 있다 해도 오히려 가려울 때가 있을 것이다. 땀 기운이 무럭무럭 나고 옷에 먹인 풀 기운이 푹푹 찌는 가운데 떨어져 있지도 않고 붙어 있지도 않은, 옷과 살의 중간에서 이가 생기느니라."
하였다.

林白湖將乘馬할새 僕夫進曰 夫子醉矣샷다 隻履韡鞋로소이다 白湖叱曰 由道而右者 謂我履韡요 由道而左者 謂我履鞋리니 我何病哉아 由是論之컨대 天下之易見者莫如足이어늘 而所見者不同 則韡鞋難辨矣라

백호(白湖) 임제(林悌)가 말을 타려고 하자 종놈이 나서며 말하기를,
"나으리께서 취하셨군요. 한쪽에는 가죽신을 신고, 다른 한쪽에는 짚신을 신으셨으니."
하니, 백호가 꾸짖으며
"길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가죽신을 신었다 할 것이고, 길 왼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짚신을 신었다 할 것이니, 내가 뭘 걱정하겠느냐."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논할 것 같으면, 천하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발만 한 것이 없는데도 보는 방향이 다르면 그 사람이 가죽신을 신었는지 짚신을 신었는지 분간하기가 어렵다.

故眞正之見은 固在於是非之中이니 如汗之化蝨은 至微而難審이나 衣膚之間에 自有其空하니 不離不襯하며 不右不左니 孰得其中이리오

그러므로 참되고 올바른 식견은 진실로 옳다고 여기는 것과 그르다고 여기는 것의 중간에 있다. 예를 들어 땀에서 이가 생기는 것은 지극히 은미하여 살피기 어렵기는 하지만, 옷과 살 사이에 본디 그 공간이 있는 것이다. 떨어져 있지도 않고 붙어 있지도 않으며,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라 할 것이니, 누가 그 '중간〔中〕'을 알 수가 있겠는가.

蜣蜋自愛滚丸하야 不羨驪龍之珠면 驪龍亦不以其珠로 笑彼蜋丸이라 子珮聞而喜之曰 是可以名吾詩라하야 遂名其集曰蜋丸이라하고 屬余序之할새

말똥구리〔蜣蜋〕는 자신의 말똥을 아끼고 여룡(驪龍)의 구슬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여룡 또한 자신에게 구슬이 있다 하여 '말똥구리의 말똥〔蜋丸〕'을 비웃지 않는다.

자패(子珮)가 이 말을 듣고는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로써 내 시집(詩集)의 이름을 붙일 만하다."

하고는, 드디어 그 시집의 이름을 '낭환집(蜋丸集)'이라 붙이고 나에게 서문을 지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余謂子珮曰 昔丁令威化鶴而歸한대 人無知者하니 斯豈非衣繡而夜行乎아 太玄大行이로되 而子雲不見하니 斯豈非瞽者之衣錦乎아 覽斯集하고 一以爲龍珠라하면 則見子之鞋矣오 一以爲蜋丸이라하면 則見子之韡矣라 人不知면 猶爲令威之羽毛요 不自見이면 猶爲子雲之太玄이리라 珠丸之辨은 唯聽虛先生在하니 吾何云乎리오

이에 내가 자패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정령위(丁令威)가 학(鶴)이 되어 돌아왔으나 아무도 그가 정령위인지 알아보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비단옷 입고 밤길을 걷는 격이 아니겠는가. 《태현경(太玄經)》이 크게 유행하였어도 이 책을 지은 자운(子雲 양웅(揚雄))은 막상 이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소경이 비단옷을 입은 격이 아니겠는가. 이 시집을 보고서 한편에서 여룡의 구슬이라 여긴다면 그대의 짚신〔鞋〕을 본 것이요, 한편에서 말똥으로만 여긴다면 그대의 가죽신〔韡〕을 본 것이리라. 남들이 그대의 시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는 마치 정령위가 학이 된 격이요, 그대의 시가 크게 유행할 날을 스스로 보지 못한다면 이는 자운이 《태현경》을 지은 격이리라. 여룡의 구슬이 나은지

말똥구리의 말똥이 나은지는 오직 청허선생만이 알고 계실 터이니 내가 뭐라 말하겠는가.”
하였다.

2. 매미 소리와 귤 향기(선귤당기蟬橘堂記)

- 悅卿: 金時習의 자(字).
- 회두타(灰頭陀): 頭陀는 범어(梵語)의 음역(音譯)으로 행각승(行脚僧)을 말한다.
- 대각무경(大覺無經): 허구로 지어낸 불경 이름.
- 김시습은 별명이 ‘오세(五歲)’였는데 다섯 살 때 세종 앞에서 시를 지어 명성을 떨쳤기 때문에 그리 불렸다 한다.

蟬橘堂記

嬰處子爲堂而名之曰蟬橘이라한대 其友有笑之者曰 子之何紛然多號也오 昔悅卿懺悔佛前할새 發大證誓하고 願棄俗名而從法號라하니 大師撫掌笑謂悅卿호되

영처자가 당을 짓고 선귤당이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의 친구 중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가 있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어지럽게 호칭이 많은가? 옛날에 열경이 부처 앞에서 참회를 할 때 크게 맹세를 하고 원컨대 속명을 버리고 법호를 따르겠다고 하니, 대사가 손뼉을 치고 웃으며 열경에게 이렇게 일렀다네.”

甚矣라 汝惑이여 爾猶好名이로다 形如枯木이라 呼木比邱라하고 心如死灰라 呼灰頭陀라하나니 山高水深이어늘 安用名爲리오 汝顧爾形하라 名在何處오 緣汝有形이라 卽有是影이어니와 名本無影하니 將欲何棄오 汝摩爾頂하면 卽有髮故로 而用櫛

梳어니와 髮之旣剃면 安施櫛梳리오

‘심하구나, 네 어리석음이. 너는 아직도 이름을 좋아하는구나. 몸뚱이가 말라버린 나무와 같은지라 목비구라 부르고 마음이 불꺼진 재와 같은지라 회두타라 부르니 산이 높고 물이 깊은 곳에서 이름을 어디다 쓰려는가. 너는 네 몸뚱이를 돌아보라. 이름이 어디에 있는가. 너에게 몸뚱이가 있는지라 그림자가 있지만, 이름은 본디 그림자가 없으니 장차 무엇을 버리려 하는가. 네가 정수리를 만지면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네가 빗을 쓰는 것이지 머리카락을 이미 깎아 버렸는데 빗을 어디다 쓰겠는가.’

汝將棄名이라하나 名匪玉帛이요 名匪田宅이며 匪金珠錢이요 匪食穀物이며 匪鼎匪錡요 匪鬵匪鼐며 匪筐筥棬杯牟甁盎及俎豆物이요 卽匪佩囊劒刀莅(채:구릿대)香으로 可以解去며 匪錦圓領繡鶴補子帶犀魚果로 可以脫去요 卽匪鼓枕兩頭鴛鴦流蘇寶帳으로 可賣與人이며 匪垢匪塵非水可洗이요 匪綉梗喉 非水鵶羽로 可引嘔歐(구오:토함)이며 匪癤乾痂로 可爪剔除라

‘네가 장차 이름을 버리려고 한다지만, 이름은 옥이나 비단도 아니요 땅이나 집도 아니며, 금이나 주옥이나 돈도 아니요 밥이나 곡물도 아니며, 밥솥이나 가마솥도 아니요 큰 가마나 큰솥도 아니며, 광주리도 술잔도 아니요 곡식 담는 각종 제기(祭器)도 고기 담는 제기도 아니다. 차고 다니는 주머니나 칼이나 향낭(香囊)처럼 풀어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비단 관복이나 학(鶴)을 수놓은 흉배(胸背), 서대(犀帶)나 어과(魚果)처럼 벗어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양쪽 끝에 원앙(鴛鴦)을 수놓은 베개나 술이 달린 비단 장막처럼 남에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때나 먼지처럼 물로 씻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물까마귀 깃으로 토해 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부스럼이나 마른 딱지처럼 손톱으로 떼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卽此汝名은 匪在汝身이요 在他人口하니 隨口呼謂에 卽有善惡하고 卽有榮辱이며 卽有貴賤하야 妄生悅惡하니 以悅惡故로 從而誘之하고 從而悅之하고 從而懼之하고 又從恐動寄身이나 齒吻茹吐在人하니 不知汝身何時可還고

그것이 네 이름이기는 하지만 너의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남의 입에 달려 있는 것이다. 남이 부르기에 따라 좋게도 나쁘게도 되고 영광스럽게도 치욕스럽게도 되며 귀하게도 천하게도 되니, 그로 인해 기쁨과 증오의 감정이 멋대로 생겨난다. 기쁨과 증오의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공포에 떨기까지 한다. 이빨과 입술은 네 몸에 붙어 있는 것이지만 씹고 뱉는 것은 남에게 달려 있는 셈이니, 네 몸에 언제쯤 네 이름이 돌아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譬彼風聲하면 聲本是虛언마는 着樹爲聲하야 反搖動樹하나니 汝起視樹하라 樹之靜時에 風在何處오 不知汝身 本無有是나 卽有是事하야 廼有是名하야 而纏縛身刦守把留니라

저 바람 소리에 비유해 보자. 바람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인데 나무에 부딪침으로써 소리를 내게 되고 도리어 나무를 흔들어 댄다. 너는 일어나 나무를 살펴보아라. 나무가 가만히 있을 때 바람이 어디에 있더냐? 너의 몸에는 본시 이름이 없었으나 몸이 생겨남에 따라 이름이 생겨서 네 몸을 칭칭 감아 너를 겁박하고 억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譬彼鼓鍾하면 桴止響騰이라 身雖百化라도 名則自在하나니 以其虛故로 不受變滅이라 如蟬有殼하고 如橘存皮하야 尋聲逐香을 皮殼之外하면 不知皮殼 空空如彼라

또 저 울리는 종에 비유해 보자. 북채를 멈추어도 그 소리는 울려 퍼진다. 그렇듯이 사람의 몸이

백 번 죽어도 이름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그것은 실체가 없으므로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이는 마치 매미의 허물이나 귤의 껍질과 같아서, 껍질이나 허물과 같은 외물에서 매미 소리를 찾거나 귤 향기를 맡으려 한다면 이는 껍질이나 허물이 저처럼 텅 비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如汝初生하면 喤喤在褓엔 無有是名이러니 父母愛悅하야 選字吉祥하고 復喚穢辱하시니 無不祝汝라 汝方是時에 隨父母身하야 不能自有라가 及汝壯大하야 廼有汝身하고 旣得立我하얀 不得無彼하니 彼來偶我하야 遂忽爲雙하니 雙身好會하야 有男女身하니 兩兩相配하야 如彼八卦라

네가 처음 태어나서 강보(襁褓)에서 응애응애 울 때에는 이러한 이름이 없었다. 부모가 아끼고 기뻐하여 상서로운 글자를 골라 이름을 지어 주고, 다시 더럽고 욕된 이름을 지어 주었으니, 이 모든 게 다 네가 잘 되기를 축원한 것이다. 너는 이때만 해도 부모에 딸린 몸이어서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성장하고 나서야 네 몸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고 '나'를 입신(立身)하고 나서는 '그'가 없을 수 없으니, '그'가 '나'에게 와서 짝이 되어 몸이 홀연 한 쌍이 되었다. 한 쌍의 몸이 잘 만나서 자녀를 두니 둘씩 짝을 이루는 것이 마치 《주역》의 팔괘와 같았다.

身之旣多하야 臃腫闒茸하야 重不可行이라 雖有名山하야 欲遊佳水나 爲此艮兌하야 生悲憐憂하며 有好友朋하야 選酒相邀하야 樂彼名辰이나 持扇出門이라가 還復入室이라 念此卦身하야 不能去赴니라

그리하여 몸이 이미 여럿이다 보니 거추장스럽게 되어 무거워 다닐 수가 없게 된다. 비록 명산(名山)이 있어 좋은 물에서 놀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즐거움이 그치고 슬퍼하고 근심하게 되며, 사이좋은 친구들이 술상을 차려 부르면서 이 좋은 날을 즐기자고 말을 해도 부채를 들고 문을 나

서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온다. 이 몸에 딸린 것을 생각하여 차마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凡爲汝身 牽掛拘攣은 以多身故니 亦如汝名이니라 幼有乳名하고 長有冠名하며 表德爲字하고 所居有號라 若有賢德하면 加以先生이요 生呼尊爵하고 死稱美謚니 名之旣多하야 如是以重하니 不知汝身 將不勝名이라 此出大覺無經하니 盖悅卿은 隱者也니 最多名하야 自五歲有號라 故大師以是戒之하니라

네 몸이 얽매이고 구속을 받는 것은 몸이 여럿이기 때문이다. 이는 네 이름과 마찬가지여서, 어려서는 아명(兒名)이 있고 자라서는 관명(冠名)이 있으며, 덕(德)을 나타내기 위해 자(字)를 짓고 사는 곳에 호(號)를 짓는다. 어진 덕이 있으면 선생(先生)이란 호칭을 덧붙인다. 살아서는 높은 관작(官爵)으로 부르고 죽어서는 아름다운 시호(諡號)로 부른다. 이름이 이미 여럿이라 이처럼 무거우니 네 몸이 장차 그 이름을 감당해 낼지 모르겠다.' 이는 《대각무경(大覺無經)》에 나온 이야기일세. 열경(悅卿)은 은자(隱者)로서 이름이 아주 많아 다섯 살 적부터 호(號)가 있었지. 때문에 대사(大師)가 이로써 경계한 것이네.

夫孺子無名이라 故稱嬰이요 女子未字曰處子라하니 嬰處者는 盖隱士之不欲有名者也어늘 今忽以蟬橘自號하니 則子將從此而不勝其名矣리라 何則고 夫嬰兒至弱하고 處女至柔하니 人見其柔弱也하고 猶以此呼之요 夫蟬聲而橘香이면 則子之堂은 其將從此而如市矣리라

갓난아기는 이름이 없으므로 영아(嬰兒)라 부르고 시집가지 않은 여자를 처자(處子)라고 하지. 따

라서 영처(嬰處)라는 호는 대개 은사(隱士)가 이름을 두고 싶지 않을 때 쓴다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선귤(蟬橘)로써 자호(自號)를 하였으니 자네는 앞으로 그 이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일세. 왜냐하면 영아는 지극히 약한 것이고 처자란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어서, 사람들이 자네의 유약함을 보고는 여전히 이 호로써 부를 것이요, 매미 소리가 들리고 귤 향기까지 난다면 자네의 당(堂)은 앞으로 시장처럼 사람이 모이게 될 걸세."

嬰處子曰 夫若如大師之言하야 蟬蛻而殼枯하고 橘老而皮空이어늘 夫何聲色臭味之有리오 旣無聲色臭味之可悅이면 則人將求我於皮殼之外耶아

이에 영처자(嬰處子)가 말하기를, "대사가 한 말과 같이, 매미가 허물을 벗어 그 허물이 말라붙고 귤이 시들어서 그 껍질이 텅 비어 버렸는데 어디에 소리와 빛과 내음과 맛이 있겠소? 이미 좋아할 만한 소리와 빛과 내음과 맛이 없는데 사람들이 장차 껍질이나 허물과 같은 외물에서 나를 찾겠소?"하였다.